

남수단에 '김연아 학교' 세운다

원선오 신부 '학교 100개 세우기 운동' 동참 7000만원 쾌척

원선오 신부(사진 가운데)의 마음을 담은 편지에 '괴여여왕' 김연아(22·고려대·사진원쪽)가 화답했다. 그 대답은 남수단에 '김연아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김연아는 지난 2일 오후 5시 서울 신길동 살레시오회 관구관을 방문, '남수단 학교 100개 세우기' 운동을 위해 도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선오 신부(본보 5월 21일자 1·18면)와 공고미노 수사를 만나 7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연아가 기부한 7000만 원은 학교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이다.

고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울지마 톤즈'로 널리 알려진 남수단은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건물 한 둘 없는 '맨비단 나뭇그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원신부는 남수단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100개 세우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원신부는 지난 5월 21일 남수단 촌락의 작은 학교 100개 건립을 위한 자신의 모금활동을 알리고 이에 도움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마음에 두고 있던 몇몇 인사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었던 김연아가 직접 원신부를 방문, 도움의 의지를 전한 것.

원신부는 '희망이 없는 곳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며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낫한 곳인 남수단의 아이들에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베풀어준 김연아는 진정한 캠피언'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연아는 "1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아프리카 토고를 다녀온 적이 있다. 그 때 아프리카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작은 힘이지만 남수단 아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신부님 일을 돋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인으로서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늘 관심있게 살펴보고 힘 닿는 데까지 돋겠다"고 덧붙였다.

원신부는 김연아의 도움에 감사하는 의미로 아프리카 토산품인 파피루스에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그려진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 남수단에 세워지는 학교 중의 하나를 '김연아 학교'라고 이름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가 완공된 후 김연아를 남수단에 초대할 예정이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함평다이너스티CC 남미경 캐디 훌인원파 전액 쾌척



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 영농기 전남 급수실태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은 지난 1일 무안·신안지사와 방문해 영농기 급수실태 점검과 시설관리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박 사장은 평소 사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현장 직원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현장경영을 펼치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해 당초 경영목표 대비 37억 원을 초과 달성해 공사 매출액 신장에 일익을 담당한 무안신안지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농기에 대비, 제때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것'을 당부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앞으로도 기부하는 클럽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캐디가 기부한 훌인원파는 다사랑 나눔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불우이웃 두 가정에 기탁됐다.

다사랑 나눔회는 3년 전부터 각자의 급여에서 매달 1만원씩을 기부하고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등을 모아서 자매결연을 한 학교면 두 가정에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학속

▲이강선·김오복씨 차남 승재(한국 광기술원 연구원)군 주 원(여수 세계박람회 KBS방송센터장)·하숙자씨 차녀 지희(LG 이노텍 연구원) 양=9일(토) 오전 11시 KBS 광주방송총국 공개홀.

▲김강수씨 동생 양수근 정해균(전 여수시부시장)·손명순씨 차녀 솔양=9일(토) 낮 12시 50분 광주상록회관 4층 로즈홀.

▲이광희·권혁진씨 차남 종필군 백 선(광주일보 남원 주재부장)·한명희씨 장녀 수연(남원시청)양=10일(일) 낮 12시 30분 군산 아리울웨딩 2층 사랑홀.

동창·동문회

▲광주아이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 및 교양강좌=4일(월) 오후 6시 30분 회랑궁회관 062-224-180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기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복부비만, 피부관리 센터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신인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지침)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인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기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育,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태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번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8월 입영 육군 동반입대병=지원자격은 84. 1. 1~94. 12. 31 출생자로 중졸이상 신체등위 1~2급자, 접수기간은 4일(월) 오후 2시~25일(월) 오후 2시까지 병무청홈페이지 선착순접수(모병센터→군지원서비스→지원서작성(공인인증서 로그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협역입영과 062-230-4246~9.

▲광주 콘서버토리예술원 수강생=여린이 성악, 보컬트레이닝, 음대 및 예고 입시교육, 이태리와 독일가

"광주 시민들 구강건강 지켜드릴게요"



광주시치과의사회 '치아사랑 구강보건캠페인'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고정석)는 3일 증심사일대에서 광주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조선대 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 광주보건대학, 서양대, 송원대, 광주여대, 전남과학 치과생과 후원으로 '치아사랑 구강보건캠페인'을 펼쳤다.

제67회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열린 이날 캠페인은 광주시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5000여명의 시민이 참여, 구강보건관련 사진전을 관람하고 무료 구강진진 및 상담을 받았다. 치과의사회는 참여한 시민들에게 구강용품세트를 무료로 배부하고 사용법을 홍보했다.

고정석 회장은 "구강보건의 증진과 계몽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치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했다"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생활화하고 치과의사회가 광주시민들에게 한발 바짝 다가가서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치과의사회는 광주시와 협약을 통해 해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구강진진을 실시해 지난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816명에게 무료로 보철진진을 해왔다. 올해도 저소득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자, 새터민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무료 보철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인터넷 사기피해자들에 감사편지 받은 광주 북부경찰

인터넷 사기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감사패를 전달해왔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장 하태옥·사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찰서장을 수신인으로 한 우편물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상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자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The Cheat) 회원들이 보내온 것으로 감사패와 함께 고마움을 표

시한 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 10명의 이름으로 된 감사패와 편지에는 '사이버 범죄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신속한 범인 검거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경찰아직은 수고하셨습니다. 믿고 사는 대한민국 만세!'라는 문구 등이 쓰여 있었다.

북부경찰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3월 인



터넷 중고 카페를 통해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물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136명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가로챈 10대 사기범 2명을 검거, 구속했다.

사이버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지만 피해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경우는 처음이다"며 "그 어떤 상보다 소중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LA한인상공회의소 업무협약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LA한인상공회의소 에드워드 구 회장(원쪽에서 네번째)과 화순전남대병원 정신 진료처장(다섯째) 등이 참석했다.

광양평생교육관 어르신들 경남수목원 현장체험



만학도들이 최근 경남 진주에 있는 경남수목원 전시실을 둘러보는 등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광양평생교육관 성인 초등학력과정 수강생들이다.

/광양평생교육관 제공

목포경찰, 목포 원예농협서 치안보고회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최근 목포 원예농협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치안보고회를 개최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서광주우체국 학생독립운동기념관서 월례조회



서광주우체국(국장 이홍연)은 최근 '한국보훈의 달'인 6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매월 실시하는 월례조회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었다.

(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한규현씨 별세 성호·경호·수진 씨 부친상=발인 4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조복순씨 별세 이만수·만식·기봉·공순·혜경·혜영씨 모친상=발인 4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한영문씨 별세 선화씨 부친상=발인 4일(월)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귀태씨 별세 한수·재현·미순·미숙·나영씨 부친상=발인 4일

故최금자 님(여/68세)	
子/女	김병진·박미순·병희·김은실
女/婿	
• 특설201호	• 발인: 6월5일
• 장지: 강원도	• 연락처: 227-4381
故최경운 님(여/71세)	
子/女	이은철·김윤희·최영자
女/婿	• 혼인101호
• 혼인102호	• 발인: 6월4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